

盧大統領 걸어서 '分斷'을 넘는다

오늘 오전 9시 군사분계선 통과...7년만에 남북 정상회담

▶ 관련기사 3·4면

노무현 대통령이 2일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국민적 열원을 안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 회담을 위해 2박3일 일정의 역사적인 방북길에 오른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 회담 이래 7년만에 열리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북한방문에 임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후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전용차를 타고 서울을 출발해 오전 9시께 도보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육로를 통해 평양으로 향한다.

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사상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직접 넘는 장면은 전 세계에 TV로 생중계 될 예정이다.

평양~개성 고속도로를 달린 노 대통령은 이날 12시께 평양에 도착,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첫 만남을 갖고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이며, 방북 이틀째인 3일 김 위원장과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공식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평양 임구인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광장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에 전격적으로 나타날 경우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첫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남북공동변영 ▲한반도 평화 ▲화해와 통일이라는 큰 틀의 의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며, 회담 결과에 따라 2000년 6·15 공동선언과 같은 선언 형태의 합의문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합의사항이 도출될 경우 두 정상은 이날 밤 인민문화공전에서 예정된 노 대통령의 답례만찬 행사에 나란히 참석해 선언문 형식의 합의문을 공동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의제로는 경제특구, 북한 인프라 구축 등 남북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경제협력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한반도 평화 부문에서는 북핵문제, 한반도 평화화해 구축, 군사적 신뢰조치 등이 논의대상으로 오를 예정이다.

화해와 통일 부분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방안을 비롯해 이산가족,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3일 오후 대동강 늘라

도 5·1 경기장에서 열리는 아리랑공연을 관람할 예정이며, 김 위원장도 함께 관람할 가능성이 높다.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두 차례의 공식 정상회담외에 정상환담, 아리랑공연 공동관람, 오·만찬 행사 공동참석 등을 감안할 경우 6차례 가량 만나서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방북기간 남북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춰 북한의 주요 경제 관련 시설인 평양시내 3대 혁명전시관내 증공업관과 남포의 평화자동차공장, 서해갑문 등을 공식 참관할 예정이다. 4일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개성공단을 방문한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1일 계통대에서 열린 건군 5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연설을 통해 "여러 의제가 논의 되겠지만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가장 우선적인 의제로 다룰 것"이라며 "평화에 대한 확신 없이는 공동번영도, 통일의 길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에 대결의 질서를 해소하고 평화의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안보전략이라고 역설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2007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일 오전 정상회담을 위한 취재 선발대와 화물을 실은 차량이 통일대교를 통과하고 있다. /연말뉴스

▶혁신도시 인근 산단 조성 ▶영산강 뱃길 복원 광주·전남 대선공약 요구

광주와 전남도는 1일 '신영산강 시대 프로젝트' 등 제17대 대통령선거 공약 반영을 위한 광주·전남 상생 발전 정책과제 3개 분야 8개 사업 등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2면〉

박광대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 지사는 이날 오전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공약 반영을 위한 광주·전남 공동과제와 시·도별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에 제시된 공약은 오는 12월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이 주요 공약에 반영, 추진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전남 공동과제는 상호 협의를 거쳤다.

공동과제는 신영산강시대 프로젝트와 광주·전남공동국가산업단지 조성, 광주·전남 광역교통망 확충 등 3개 분야다.

신영산강시대 프로젝트는 영산강 뱃길복원과 영산강 강변도로 건설 등이 포함됐고, 나주 공동혁신도시 인근에 100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과제로 선정됐다.

광주시가 제시한 공약으로는 첨단 노인건강타운 조성(국립노화연구소 설립,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설립 등)과 광주첨단산업·과학연구단지 건설(R&D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 등), 문화수도 역량강화(문화산업복합지구 조성, 국립 역사박물관 건립) 등 3개 분야 19개 프로젝트다.

전남도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첫 번째 공약으로 꼽은 것을 비롯,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의 세계적 관광모델로 개발, 2010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 서남권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지정, 우주항공중심도시 건설 등 13개 정책과제를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첨단의료산업 클러스터 구축, 무안국제공항의 환형해권 거점 공항화, 전남~제주 해저터널 개설 등도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호남고속철-무안공항 연계' 목살 건교부 '공기 단축' 요구도 거부

전남도가 정부에 건의했던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국제공항 연결과 공기 단축 요구가 목살돼 서남권 물류체계 활성화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11월 무안공항 개항 후 교통량 증가로 호남고속철 구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나온 정부의 수용불가 방침은 너무 근시안적인 태도라는 지적이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맡고 있는 건교부 산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연계 및 공기단축 요구를 추가비용 발생과 기본계획 차질 우려를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철도시설공단은 전남도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노선이 17km 연장돼 7천여억원의 건설비가 더 필요하고, 당초 노선을 변경할 경우 공기가 최

장 2년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무안국제공항 개항과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J프로젝트),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등이 본격화되면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연결 필요성이 절실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

올 최고의 쌀은 '한눈에 반한 쌀'

해남 옥천농협의 '한눈에 반한 쌀'이 올해 한국소비자단체가 선정한 최우수 브랜드쌀에 선정됐다.

특히 '한눈에 반한 쌀'은 2006년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으며 지난 2003년 시작된 브랜드쌀 평가 이후 5년 연속 우수브랜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농림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2007 전국

시중유통 브랜드 쌀 베스트 12' 평가에서 전남쌀은 '한눈에 반한 쌀'을 비롯해 5개의 브랜드가 선정돼 전국적인 명성을 재확인했다.

강진 도암농협의 '봉황쌀', 나주 남평농협의 '왕건이 탐낸 쌀 골드', 나주 동강농협의 '드림생미', 강진 강진농협의 '프리미엄 호평' 등도 이번 평가에서 우수 브랜드로 선정됐다. /박치경기자 unipark@

광주체전 경기장 안내도 챙겨 놓으세요 ▶22면

100년의 사랑 - 부채표
동화약품

“저도 까스활명수
좋은거 다 알아요!!”

젊다고 뭐든지 다 소화시키는거 아니잖아요.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저는 그럴 땐 까스활명수만 마셔요.
소화에 좋은 11가지 생약성분까지 있으니까 -
부채표 까스활명수 좋은거 저희도 다 알아요

11가지 생약성분 소화제- 부채표 까스활명수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소화를 돕는 까스활명수의 11가지 생약성분 : 아산화, 고추틴크, 계피, 육두구, 현호색, 정향, 창출, 건강, L-Menthol, 진피, 후박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섭취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광고심의번호 928-0200

11가지 생약성분- 부채표 **까스활명수**큐

유망학원 장학 57년 역사인 연평

남부대학교
http://www.nab.ac.kr

전남과학대학
http://www.jnsci.ac.kr